

雲門

불기 2565년

가을호

통권 제157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가을이 익어가는 냄새가 지나간 시간들을 불러옵니다. / 서안 대교과
- ▣ 벼는 익어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는 얼마나 익었는가? / 해성 대교과
- ▣ 진심 어린 충고로 탁마해 준 소중한 도반들과의 운문에서의 마지막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 윤담 대교과
- ▣ 우리의 마음도 장군평 연못에 뜬 달과 같이 묘명妙明이로다. / 명환 사교과
- ▣ 도토리 풍년~ 내 마음도 풍년~ / 무공 사교과
- ▣ 오백나한님들과 함께하는 가을은 어느 때 보다 풍요롭네~ / 효민 사교과
- ▣ 따사로운 가을햇살에 우리의 수행도 익어갑니다. / 정연下 사집과
- ▣ 노랗게 무르익은 들판에 빨간 고추잠자리~ 날아 다니며 마음 비우라 노래합니다. / 지명 사집과
- ▣ 추석 보름달처럼 우리 마음도 크고 둥글기를… / 우현 사미니과
- ▣ 나무야 나무야 너희들은 마음공부를 어떻게 하니? / 보명 사미니과
- ▣ 가을바람과 함께 우리의 탐진치도 사라지기를 / 혜진 사미니과

雲門

목차

- | | | |
|----|----------------|-------------------------------------|
| 02 |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 죽림현 | 원웅무애圓融無礙 명성 |
| 06 | 교수논단 | 운문사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 ② 은광 |
| 09 | 풍경소리 | 새벽별 진하下 |
| 10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무상無常의 그리움 원법 |
| 12 | 학인논단 | 「圓覺經」「普眼菩薩章」에 나타난 수행의 핵심 ② 도영 |
| 16 | 선배 탐방 | “할아버지” 스님
- 운문사 총동문회장 지호 스님 - 도현 |
| 20 | 외부기고 | 마음 거울 명상 체험하기 지운 |
| 25 | 想 | 밤나무 자연 |
| 26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보리수 수목원 가는 길 혜주 |
| 28 | 수행의 두레박 둘 | 사유의 힘 원경下 |
| 30 | 수행의 두레박 셋 | 간절함 도솔 |
| 32 | 운문, 운문인 | 운문의 기운, 그 소박한 선물 편집부 |
| 34 | 차례법문 | 초발심 수행 총지 |
| 36 | 자유기고 1 | 고마운 선물 수정 |
| 40 | 운문만행 | 추석산행 도토리 이야기 경운 |
| 42 | 자유기고 2 | 만족의 길로… 보선 |
| 44 | 화랑동산 | 운문사 어른스님들의 특강을 들으며 교화부 |
| 46 | 이 한 권의 책 | 「주역周易」을 읽고 동호 |
| 48 | 운문논평 | 하얀 거짓말에 대한 일고 편집부 |
| 50 | 운문소식 | |
| 51 | 등불 | 기우騎牛 |



원융무애圓融無礙

명성 / 운문사 회주



운문사는 예전부터 계절을 불문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최근 몇 년은 부쩍 늘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장을 돌아보면 모두 차가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현상은 운문사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산하대지 경치 좋은 곳엔 차량과 인파로 몸살을 앓는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답답함에서의 해방, 경제적으로 좀더 여유로워진 면, 휴식, 친목도모, 건강을 위한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간에 쌓인 스트레스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클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삶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고 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주변사람들과 소통이 잘되어 뜻이 잘 맞으면 평화롭고 그 반대이면 불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그 상황에서 벗이나려는 방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고득락離苦得樂]을 근본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방법으로 원융무애圓融無礙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융무애는 불교가 펴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이자 경지입니다. '원圓'은 가득 차 모자람이 없음을 말하며, '융融'은 녹는다는 뜻입니다. '무애無礙'는 어떤 막힘도 없는 자유자재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모든 바깥 경계와 만나 그 속에서 서로 녹아 하나 됨을 의미합니다. 화엄종에서는 사법계四法界로 세계를 설명하는데 그중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를 가장 이상적인 단계로 봅니다. 이 법계는 원융무애의 법칙에 따라 운용되어 모든 현상과 현상이 완전히 자유자재해서 서로 걸림 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입니다.

원융무애정신은 종교를 떠나 크게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서부터 작게는 '나'에 이르기까지 운용되어야 하는 기본법칙입니다. 물과 우유가 서로를 거부하지 않고 섞여 하나가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이라는 '우유'라는 막을 치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인, 정확히 원융무애의 법칙을 따라 드러난 세상이니까요. 유정물인 인간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일까요?

지구에 이런 경지로 운용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자연입니다. 현대 철학자 딜타이가 "인간은 자연의 학생이며 지구는 인류의 교실이다."라고 한 말이 괜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연은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원융무애의 법칙에 따라 운용되는 존재하는 유일한 순수 세상임을 인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간 그곳에서 분별과 욕심 없이 서로 상생하는 원융무애의 법칙을 꼭 배워서 자신들의 인간관계에 적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구 이편에서의 한 사람의 미약한 날갯짓이 지구 저편에 토네이도를 일으켜 우리와 지구가 좀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

운문사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 ②

은광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 I. 시작하며
 - II. 운문사승가대학의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 III. 수행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 IV. 마치며
- 
- 3. 현재 (불교의 지식화, 개념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현재 교육원의 지침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실행되면서 34과목으로 교과목이 개편되고 학사일정이 통일되었다.⁷⁾

그리고 한문으로 된 교과목을 소화하기에 역부족이 아닌가하는 걱정과 전통적인 이력과목이 이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 수행지침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고민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중관, 유식, 정토, 초기불교, 포교, 응용분야, 역사 그리고 개론서들이 포함되어 좀더 평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1·2·3·4학년에 각각의 과목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져 있다.

새로 개편된 교과목을 시행한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다. 현대식 교육으로 바뀐 이 시스템은 토론과 발표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교수스님이 강의하는 것보다는 학인들의 참여도가 높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도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듯하다.

『맹자』에 알묘조장 撫苗助長이라는 말이 있다. 쌩이 빨리 자라지 않아 답답함을 못 이겨 쌩의 키를 키우기 위해 쌩을 모조리 뽑아 놓았다는 이야기이다.

불교교육은 수행자를 만드는 일이고 성숙한 수행자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바쁜 마음을 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불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일반사회와 똑같이 우리 불교 내부에서도 뭔가가 너무 급하고 바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행자기간이 너무 짧아서 행자시절에 익혀야 할 염불이나 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승가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예전과 다르게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다양한 검토 없이 너무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기간이 반드시 더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강원교육이 너무 방대한 분량의 경전을 학인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한문으로 교육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불교교육이 지식화 개념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론서나 요약본을 교재로 34과목을 배우는 것이 과연 현대식 교육으로 발전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불교 교육의 통일성과 획일성이 깊이 있는 교

육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III. 수행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오래된 미래)

지금은 수행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 이 질문이 앞으로의 교육의 전망이 되리라 믿는다.

AI나 4차산업 유튜브 등등 교리적 개념적 이해는 컴퓨터 네이버가 다해 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최고 강사들의 강의는 유튜브에서 다 들을 수 있고, 큰 스님들의 법문도 시공을 초월하여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책과 컴퓨터를 통해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시대에 사람들은 왜 출가를 하는 것일까?

반대로 핸드폰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경쟁 긴장 속에서 불교수행은 부처님시대로부터 축적된 고도의 지혜를 간직한 보배창고를 가지고 있고, 성숙한 수행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왜 출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

또 요즘 많은 스님들마저도 미안마로 수행을 배우기 위해 떠나가고 있고, 티베트 불교를 비롯하

여 다양한 불교 수행을 우리 한국스님들이 기꺼이 선택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한국불교의 교육프로그램과 수행프로그램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명상수행을 하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아주 비싼 값을 치루고 명상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수행을 배우고 있고, 수준 높은 정신적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기꺼이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을 하는 시대다.

수행을 깊이 있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행을 돋기 위해서는 어떤 스님이 필요한 것인가?

16주 동안 발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부는 이제 한계에 부딪쳤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산스크릿 본에서는 어떤 의미고 현장과 구마라즙이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도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상과 인상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서로 고민하며 수행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 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대인들에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내용과 방법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7) 〈표4〉 2012년 이후 교육원 지침에 따라 확대 개편된 교과목

학년	과목
1학년	치문, 초기불전,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교개론, 계율, 초기불교 이해, 염불, 요가, 서예 등
2학년	서장(선가귀감), 도서, 선요, 절요, 불교영어, 아비달마의 이해,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선학개론, 염불, 요가, 서예 등
3학년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선어록, 계율, 포교방법론, 대승불교개론, 정토사상, 유식, 여래정사상, 간화선의 이해, 염불, 요가, 서예 등
4학년	화엄경, 화엄사상, 대승불교 실천론, 불교 상담실리, 불교와 사회, 불교와 과학, 염불, 요가, 서예, 선화 등

중앙승가대학이나 동국대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불교교육방법과 승가대학(강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은 분명 달라야 한다. 수행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달라서 불교교육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불교에서의 경전 공부방법이라면 '문사수聞思修'와 '신해信解 수지독송受持讀誦 서사書寫 위타인설爲他人說'이라는 비법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지식이 아닌 지혜를 중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인 듯하다.

눈으로 글을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공부는 불교수행으로 체화되기 어렵다. 요즘처럼 가볍고 산만하고 즉흥적인 세상에서 필요한 수행법으로 배우고 들은 것을 깊이 고요히 사유하는 것, 그리고 실천으로 겸중하는 방법이 문사수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외워지는 수지독송의 방식, 원문을 쓰고 새김노트를 써서 제출하던 방식, 그 속에 빛나는 한국불교의 정신을 찾아내는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대단히 세련되고 친절한 최첨단 설명서가 제시된다면 말이다.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가귀감에 다 제시되어져 있고,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초발심자경문에 날날이 다 제시되어져 있다. 이 시대의 청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이다.

형식적인 군더더기가 제거되고 본질적 의미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우리의 과거에 다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깨달음을 목적으로 직접 반야와 자비를 체득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없다면 수행자들은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어떤 포교도 교육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는 하위권이다. 자살률이 높고 청소년들은 젊은이다운 기백을 잃어버렸다. 그들이 불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스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스님이 필

요한 시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비 되어야 하리라.

IV. 마치며

운문사승가대학은 경전을 공부하고 대중생활을 익히며 수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우고 신심을 중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복합수행공동체이다. 이곳에서는 예불과 기도, 불공과 제사, 운력과 간경, 논강과 자자, 포살, 발우공양 등이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며, 수행을 하는 승가공동체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중한 가치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 범종소리로 하루해가 저무는 곳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던가. 멀리 내다보고 끊임없이 보살피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다. 여념한 수행자로 성숙하는 과정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서 튼튼한 나무로 자라는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리듯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금한 마음을 쉬고 다시 한 번 질문해야 할 시간이다.

불교란 무엇인가? 여래의 진실은 뜻은 무엇인가?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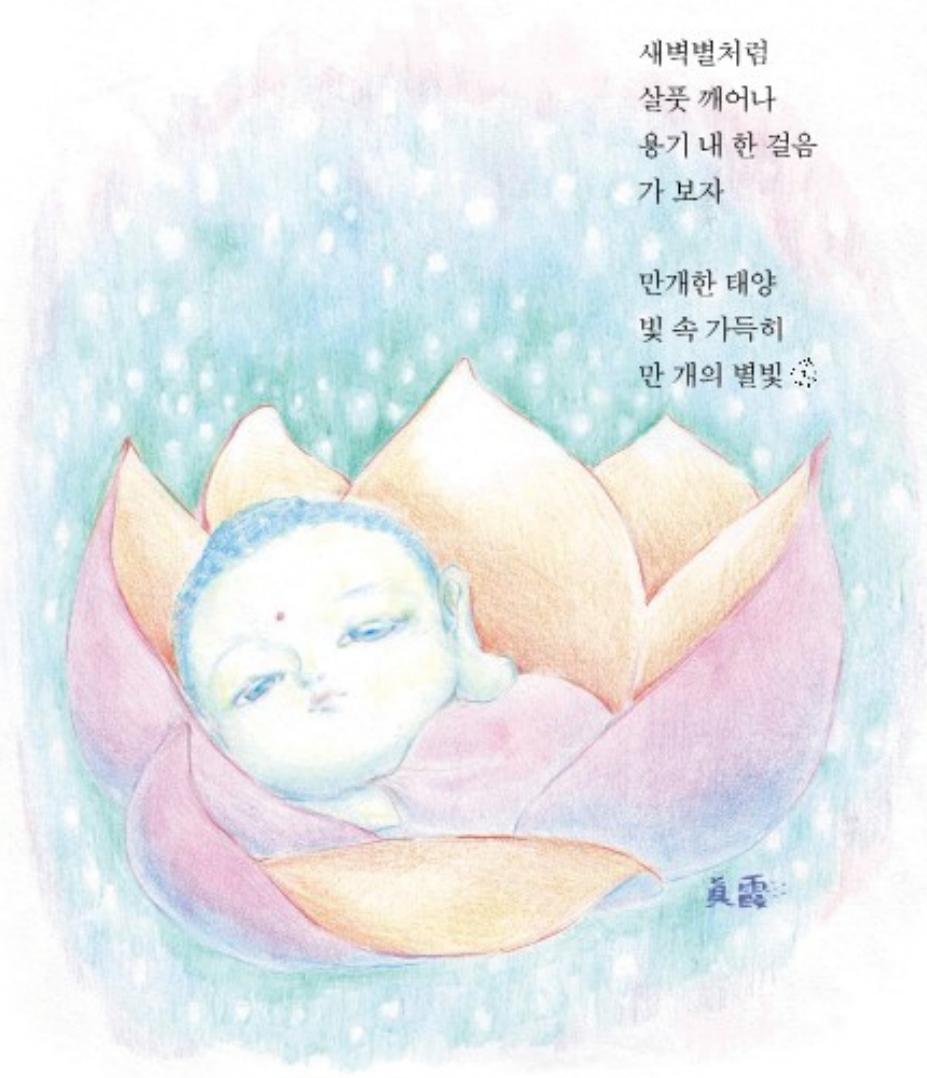
새벽별

진하下 / 사집과

어스레한 하늘
저 먼 끝자락
떨리는 숨결
점 한 개

새벽별처럼
살풋 깨어나
용기 내 한 걸음
가 보자

만개한 태양
빛 속 가득히
만 개의 별빛 ☀



무상無常의 그리움

원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심장원 앞마당 길게 드리운 잣나무가 노랗게 솔개비를 떨구는 '수조엽락樹凋葉落'의 시절, 백일 이 좀 지난 작고作故하신 모친 생각이 더욱 절절하다. 고아孤兒로 맞는 첫 가을이다.

매 철마다 있는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경책하고, 깨어 있게 하는 귀한 발심의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에 25여 년 전 나의 법문시간이 문득 떠오른 것은 부모님에 관한 법문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때 법상法床에서 다 같이 눈시울을 불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추수시절이 오면 깊은 골 천수답에서 두 분은 해가 떨어질 때까지 벼를 베고 타작을 하셨다. 어린 나는 홀로 소죽을 끓여 놓고 어둑어둑 해진 산길 초입까지 마중을 나가 부모님을 기다렸다. 멀리서 들리는 워낭소리에 한걸음에 달려가 아버지로부터 소고삐를 건네받고 친군만마를 거느린 듯 의기양양하게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다.

멀랑거리는 소 방울소리에 어둠은 더욱 깊고 고요해지는데 소보다 작은 나였지만 나름 호기롭게 소를 몰고, 그 뒤를 지게에 나락을 한 가득 짊어지고 태산처럼 묵묵히 아버지가, 그 뒤를 어머니가 함지박을 이고 종종걸음으로 따르셨다. 집에 도착하면 내 관심은 온통 아버지의 지게에 집중되었다. 이번에도 지게에는 어김없이 가을 주전부리인 토실토실 윤기 나는 알밤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지게에는 봄이면 한가득 참꽃, 송구가, 여름이면 나무딸기, 보리똥이, 가을이면 돌복숭, 돌배, 밤 등이 언제나 나를 반긴다. 눈 내린 하얀 겨울이면 저장해 놓은 언감을 부뚜막에 죽 들어놓고 반쯤 녹은 빨간 홍시를 골라주시던 어머니.

이 화중유시畫中有詩의 서정抒情이 후일 자연 속에서, 자연을 닮아,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게 했고, 출가 수행자의 삶을 선택하게 한 동인動因이 되었다.

염념念念에 두 분이 그립다. 갓 출가한 그 시절에는 승속僧俗의 단절斷絕이 가져다주는 그리움이었다면 이제는 생사生死로 인한 무상無常의 그리움이다.



『앙굿따라 니까야』,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설해 놓으셨는데 요약해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不死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하는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숙고해야 한다.

‘내가 죽게 되면 나에게 장애가 될,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비구가 자신을 반조하여서 그러한 법들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는 그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퇴전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옷이 불타고 머리가 불타는 자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의욕과 노력과 분발과 불퇴전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행해야 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자신을 반조하여서 ‘내가 죽게 되면 나에게 장애가 될,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나에게 없다.’라고 알게 되면 그 비구는 밤낮으로 유익한 법에 공부 지으면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중처면추重處偏墜라 했던가! 부모와의 정情이 특히 지극했던 나. 그런 내가 홀로 담담히 모친의 임종을 지켜드렸다. 직접 죽음을 본 첫 순간이기도 했다. 모친이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그 식어가는 모친의 육신을 안고 오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연기緣起를 설하시고, 무상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시나브로 사무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불어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는 백낙천이 보고 탄식했던 그 노승과 너무나 닮은꼴이다.

어느 날 머리 희끗희끗한 노승이 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본 백낙천이 ‘출가한 사람에게는 본분本分이 있는데 어떤 것이 화상의 본분인가’라고 묻는다. 60여 년을 경을 독송했음에도 한마디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공문에 길이 있으나 어딘 줄 알지 못하고서(空門有路不知處), 머리 회고 이가 누래지도록 경전만 읽었네(頭白齒黃猶念經) 성문주를 마신 지 몇 해린가(何年飲著聲聞酒) 지금까지 취해 깨어나지 못하네(直到如今醉未醒)”라고 경책해 주었던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 30여 년 먹물 옷을 입었으나 지금까지 생사가 곧 나의 문제임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저 노승처럼 입으로만 남남喃喃거리던 살림살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날들이다. 코끼리가 물을 건널 때 그 밑바닥까지 철저히 밟고 건너가듯이 근원을 사무치게 반조返照하고 진참회眞懺悔하도록 해 준 최고의 선지식인 부모님. 이 세상의 모든 선先 부모님들의 극락왕생을 지극히 발원해 본다.

모친께서는 집을 떠나 계실 때면 항상 빨리 집에 가시고자 하였다.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제 의문지망依門之望하시던 부모님의 부재不在에 외면하고만 있던 텅 빈 시골집을 한번 다녀와야겠다. 체로금풍體露金風의 이 계절에 말이다. ☺

『圓覺經』 「普眼菩薩章」에 나타난 수행의 핵심 2

도영 / 사교과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원각경은 어떤 경전인가?
 - 1) 원각경의 유동 및 주석서
 - 2) 원각경의 명칭
 - 3) 원각경의 구성과 내용
3. 「보안보실장」에서 제시하는 수행이란?
 - 1) 「보안장」이 수행자에게 주는 의미
 - 2) 「보안장」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의 핵심
 - (1) 사마타奢摩他 수행으로 삼학三學을 닦아라.
 - (2) 몸과 마음이 환幻임을 관하라.
 - (3) 일체가 청정하여 공空함을 관하라.
4. 수행으로 원각圓覺이 성취되면
5. 맺는말

2) 「보안장」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의 핵심

(1) 사마타奢摩他 수행으로 삼학三學을 닦아라.

수행은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계持戒를 인하여 선정禪定이 생기고, 선정禪定을 인하여 지혜智慧가 생기니, 이것이 배우는 순서가 된다. 역으로 선정禪定은 지계持戒가

아니면 완성되지 않고, 지혜智慧는 선정禪定이 아니면 생겨나지 않는다.²¹⁾

善男子。彼新學菩薩及末世衆生。欲求如來淨圓覺心。應當正念遠離諸幻。先依如來奢摩他行。堅持禁戒。安處徒衆。宴坐靜室。恒作是念。

“선남자야! 저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세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원각심을 구하고자 한다면, 웅당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떠나야 한다. 먼저 여래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금계를 굳게 지녀서, 대중에 편안히 거처하고 조용한 방에 편안히 앉아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지어가라.”

“금계禁戒를 굳게 지녀서,”는 계戒요, “조용한 방에 편안히 앉아서”는 정定이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지어가라.”는 사유思惟하는 것으로 혜慧를 말한다. “사마타행奢摩他行²²⁾”이란 바로 계戒를 지키고 정定에 들어가 망념을 쉬고 고요히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수지修止한다.’는 뜻이다. “웅당 바른 생각正念으로써 모든 환幻을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은 사마타수행에 의지하여 정념正念으로 생겨나는 지혜智慧로 관찰하면, 신심身心에 어떠한 실체도 없다는 것을 알아서, 모든 환幻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2) 몸과 마음이 환幻임을 관하라.

善男子。彼之衆生幻身滅故幻心亦滅。幻心滅故幻塵亦滅。幻塵滅故幻滅亦滅。幻滅滅故非幻不滅。譬如磨鏡垢盡明現。善男子。當知身心皆爲幻垢垢相永滅十方清淨。

“선남자야! 저 중생이 幻身(환의 몸)이 멀한 까닭으로 幻心(환의 마음)이 또한 멀하며, 환의 마음이 멀한 까닭으로 幻塵(환의 육진)이 또한 멀한다. 환의 육진이 멀한 까닭으로 幻滅(환의 소멸하는 작용)이 또한 멀하는 것이다. 환이 소멸하는 작용이

멸한 연고이지, 非幻(환 아닌 것)까지 멸하는 것은 아니다. 비유하면 거울의 때를 닦아서 다 없어지면 밝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마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이니 때의 모습이 길이 멸하면 시방이 청정하리라.”

원각을 드러내려면 첫째, 관신觀身하라. 몸은 사대四大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지地·수水·화火·풍風으로 돌아가니, 이 몸이 허망함을 관하라.

둘째, 관심觀心하라. 사대四大가 임시로 화합하여 육근六根이 있고, 육근六根과 사대四大가 안팎으로 합쳐 이루어져, 허망한 기운이 인연하여 모습이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을 가명假名으로 마음이라 하니 이 마음 또한 허망함을 관하라.

몸과 마음이 모두 환幻의 때이니, 이것을 닦아 떼가 없어지면 청정한 원각圓覺이 드러나리라.²⁴⁾

(3) 일체가 청정해서 공空함을 관하라.

善男子。根清淨故色塵清淨。色清淨故聲塵清淨。香味觸法亦復如是。善男子。六塵清淨故。

地大清淨。地清淨故水大清淨。火大風大亦復如是。善男子。四大清淨故。十二處十八界二十五有清淨。彼清淨故。十力四無所畏。四無礙智佛十八不共法。三十七助道品清淨。如是乃至八萬四千陀羅尼門。一切清淨。

“선남자야! 육근六根이 청정한 까닭으로 색진

色塵이 청정하며 색진色塵이 청정한 까닭으로 성진聲塵이 청정하며 향香·미味·촉觸·법法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육진六塵이 청정한 까닭으로 지대地大가 청정하며 지대地大가 청정한 까닭으로 수대水大가 청정하며 화대火大·풍대風大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사대四大가 청정한 까닭으로 12처十二處·18계十八界·25유二十五有가 청정하며, 이와 같이 청정한 까닭으로 10력十力·4무소외四無所畏·4무애지四無礙智·불18불공법佛十八不共法·37조도품三十七助道品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내지 菩提사천 다라니문이 일체가 청정한 것이다.”

십이처 十二處	육근六根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 각각기관과 그 기관이 가지는 능력
	육경六境 (육진六塵)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 객관적 만유의 대상, 육식六識으로 인식하는 대경對境
	육식六識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육경六境에 대하여 보고, 듣고, 맑고, 맛보고, 달고, 알고 하는 인식작용

육근六根이 청정한 까닭으로 육진六塵·사대四大·12처十二處·18계十八界·25유二十五有²⁵⁾가 청정해진다. 세간의 이와 같은 것들이 청정해지니, 이른바 일체의 출세간법出世間法도 청정해진다. 10력十力²⁶⁾·4무소외四無所畏²⁷⁾·4무애지四

21) (2001), 『圓覺經 酒虛解』, 99, 참고.

22) 사마타奢摩他 : 지관止觀에서 지는 사마타奢摩他, 관觀은 위빠사나鹿鉢衆那의 음역音譚. ① 지는 : 정신을 통일하여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적정寂靜상태에 있는 것, 정定. ② 관觀 : 지혜智慧에 의하여 법法을 사유 관찰하는 것, 혜慧.

23) 활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80~81, 참고.

24) 활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84~85, 참고.

25) 25유 二十五有 : 3계界에 윤회輪迴하는 존재를 25가지로 분류한 것, 有는 존재存在란 뜻.

26) 10력十力 : 부처님께만 있는 10가지 심력心力.

27) 4무소외四無所畏 : 둘보살이 설법할 때 두려움이 없는 4가지 지력智力.

無礙智²⁸⁾ · 불18불공법佛十八不共法²⁹⁾ · 37조도품三十七助道品³⁰⁾ · 팔만사천 다라니문이 이것이다.

청정清淨이란 공空의 다른 말이다. 일체법이 원각圓覺에 합하면 일체가 청정하여 평등平等 무이無二 부동不動해지니, 그 공空함을 관觀하라고 한 것이다.³¹⁾

4. 수행으로 원각圓覺이 성취되면

저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정념正念으로 환幻을 여의는 수행을 하고, 법法을 구하면 불도佛道를 이루리라. 바야흐로 원각圓覺이 성취되면 각성覺性的 불이不二를 알아서 능히 수순하므로, 양극단의 모든 상대에서 분별취사分別取捨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생사를 싫어하거나 열반을 좋아하지 않으며, 계戒를 지키는 것을 공경하거나 어기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 등 중도中道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다. 악惡을 끊되 끊어도 끊은 것이 없고, 선善을 행하되 행해도 행함이 없는 것이며,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해도 교화함이 없는 것처럼 지범持犯을 모두 잊어서 나와 남이 평등하여 원용무제圓融無際한 것이다.³²⁾

중생이 본래 부처를 이루었으며, 생사와 열반이 마치 지난밤 꿈과 같다. 꿈인 줄 알면 득실得失 · 취사取捨도 없으며 능能(중득한 자) · 소所(중득된 진리)도 없으니, 일체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스스로 본래 있었던 것을 깨달았을 따름이지 옛날에 잃었던 것을 지금 비로소 얻게 된 것이 아니며, 또한 일찍이 버렸던 것을 지금 취한 것도 아니다.

미혹한 것도 스스로 본래 있었던 것에 미혹할 뿐 득실得失과 취사取捨는 단지 중생의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미혹이나 깨달음으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있는 것이 아닌, 각성覺性은 본래 있는 것이다.³³⁾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각圓覺이 성취되어 본성本性의 자리에서 마음을 쓰고 행동하면, 분별취사하고 번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방청정無方清淨한 무념無念의 마음으로 수순隨順한다는 뜻이다. 『금강경』에 “옹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 而生其心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과, 또 옛말에 “원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같은 마음에 걸림 없이 무심無心하게 공空한 마음으로 ‘그냥 행하라.’는 것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처럼 환희롭고 물러남이 없는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르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정진하고자 한다.

5. 맺는말

요즘 세상은 1인 1가구 시대에 걸맞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껏 멋대로 무엇이라도 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세속의 생활이 온몸에 짓어서 익었다가 승가 대중 속에서 함께하는 생활은 쉽지 않았다. 수시로 ‘나’를 들이대며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라며 ‘나는 잘 낫다.’는 생각을 일으켰다. 이러한 아만我慢을 들고 내려놓지 못한 채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我是他非)’라고 할 때마다 마음에서는 번뇌가 치성熾盛하고 편치 않았다.

당唐 육조 혜능慧能 선사(638~713)는 『금강반야바라밀다경해의金剛般若波羅蜜多經解義』에서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란?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그 마음을 항복 받는 것이다. ‘내가 능하고 내가 잘 안다.(我能我解)’라고 하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은 청정심清淨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낮추어 모든 중생을 공경恭敬하는 것이 수행자의 청정심이다.”라고 하셨다.³⁴⁾ ‘내 마음은 청정한 날이 얼마나 되었나?’ 스스로

돌아보니 부끄러운 날이 많았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강원 생활은 온갖 망념과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었다. 수순을 강조하는 생활규율은 '나'를 들고 있을 틈을 주지 않았다. 바쁜 일상은 찰나의 순간마다 정신을 끽바로 차리고 정념正念으로 마음을 챙기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 일보다 대중을 거스르지 않는 일부터 해 나가야 했고, 이른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마음을 다해서 공경恭敬히 모셔야 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힘겨울 때도 많았다. 지나고 보니 처음에 힘겨웠던 일을 지금은 쉽게 받아들이고 '나'를 잊은 채로 그냥 하는 것이 많아졌다. 그만큼 마음이 커지고 익어가며, 단단해져 힘이 생기고 있었다. 승가의 일상 생활은 그 자체가 내 몸과 마음 및 망령된 '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밖에 없이 만드는 삶의 현장이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눈을 밝히고 나의 몸과 마음과 업식에 남아 있던 구습이 닦여지고 버려지며,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원각圓覺'을 되찾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수행자가 정진할 때는 몸이 마르고 쇠약해지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정

진해서 반드시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얻어는 산란하기 위해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견디며 죽을 힘을 다해 바다에서 본래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오른다. 수행자도 온갖 번뇌와 탐貪·진瞋·치癡의 바다를 거슬러 올라 본래 가지고 있던 '원각圓覺'의 강을 되찾아가야 한다. 필자는 이 과정을 구태의 연한 안일한 생각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으므로 용맹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죽을 힘을 다해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고, 세세생생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보살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족한 글을 마친다. ⑥

〈참고문헌〉

- 『大正新修大藏經』券17,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2001), 『圓覺經 涵虛解』, 경북 : 曹溪宗立 僧伽大學院.
황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서울 : 운주사.
(2021), 『金剛經 五家解 講義』.
(2016), 『都序』, 서울 : 조계종출판사.
伽山 李智冠(2015), 『伽山佛教大辭林』, 서울 :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부.
운허 용하(2012), 『불교사전』, 경기 : 佛泉.
(1988), 『佛光大辭典』, 佛光出版社.

〈자료출처〉

- [문광스님 tv] 탄허사상 특강(44) : 원각경圓覺經 서문 1
(2015 03 15)
<https://www.youtube.com/watch?v=suHGoR2wuHI>
[2021.6.17].

- 28) 4무애지四無礙智 : 마음의 방편으로 지혜 또는 해解, 말의 방편으로는 변轉이라 함, 지혜解와 변재轉才가 자제하여, 불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4가지 걸림이 없음.
- 29) 불18불공법佛十八不共法 : 부처님께만 있는 공덕으로 2승(성문, 연각)이나 보살들은 갖지 못한 18가지 능력.
- 30) 37조도품三十七助道品 : 지혜를 추구하고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37가지 수행방법, 4념처四念處·4정근四正勤·4여의족四如意足·5근五根·5력五力·7각자七覺支·8정도八正道의 7과 7과 37도품道品.
- 31) 황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90~98, 참고.
- 32) (2001), 『圓覺經 涵虛解』, 21, 116~119, 참고.
- 33) 황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97~111, 참고. (2001), 『圓覺經 涵虛解』, 116~118, 참고.
- 34) (2021), 『金剛經 五家解 講義』, 142, 223~224, 참고.

“할아버지” 스님

- 운문사 총동문회장 지호 스님

도현 / 사교과



“저는 보여줄게 없습니다. 잘 알려진 다른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문지 선배스님 탐방〉 섭외전화를 했을 때, 선배스님께서는 취재를 극구 사양하셨다.

내 놓을 보따리가 없다며 겸손하게 사양하면 할수록 ‘선배스님은 어떤 분일까’ 더 궁금했다.

선배스님은 경기도 안양 안홍사 주지스님으로 운문사를 25회에 졸업하셨고, 차기 총동문회 회장을 맡게 된 지호 스님이시다.

운문사에서 아침공양을 끝내자마자 ‘선배스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궁금증어린 설렘을 안고 안양으로 출발했다. 가는 길 도로가에 분홍빛 배롱나무꽃이 만발해 있었다. 오랜만의 외출이었지만 문화부 첫 탐방 취재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꽃들이 눈에 그냥 스쳐 지나갔다.

5시간 정도 지나 안양에 도착해서 스님 계시는 안홍사로 향했다. 으레 절은 한적한 곳에 있으리라는 짐작과는 다르게 안홍사는 안양 예술공원에 위치해 있었다.

安興寺.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일주문을 지나 절에 들어가 대웅전을 보니 빛바랜 단청에서 옛 고찰 느낌이 물씬 풍겼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듯했다.



선배스님은 한걸음에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 주셨으며 낯설어하는 우리를 편안하게 대해 주셨다.

법당 참배 후 전국비구니회 원로의
장이시고, 선배스님 은사스님께 인사드
리니, 어른스님께서는 “이야기 잘해요”
하시며 인자하게 말씀하셨다.

◆ 운문사 강원은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려서 절에 오게 되었어요. 노스
님께서 길러 주셨는데 어릴 때 천수경
을 다 외워 노스님의 귀여움을 많이 받
았어요. 14살에 삭발 염의해서 출가를
했고, 길러 주신 노스님께서 늘 “큰스님
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새기
며 자랐어요.

일찍 출가를 해서 학교 공부에 아
쉬움이 있어 동국대학교를 가게 되었어
요. 처음 절에 왔을 때는 타의에 의해서
였지만 출가를 결심했을 때는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고자 발심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는,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문사강원으로 향했지요.



◆ 동국대를 졸업하신 후에 강원에 오시게 된 건데 생활하시는 것은 어떠하셨는지요?

초발심으로 발심發心하고 분심憤心하는 마음이 좀더 강해져야겠고, 그런 마음을 챙기고 싶어
운문사에 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운문사 처음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비가 올 때 호거산자락에
물안개 피어나는 것도 좋았고, 쿵쾅쿵쾅 거리며 흐르는 이목소 계곡 물소리도 좋고, 방선하고 도량
을 거니는 것 등도 좋았어요.

◆ 운문사 재학시절 할아버지 스님으로 불리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없이 가만히 웃기만해서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생긴 듯 싶어요. 법명대신 늘 할아버
지로 불렸어요. 그러다보니 재미있는 일도 있었는데요. 하루는 사집반일 때 상반스님이 찾아와
“지호 스님 좀 불러줘요.” 했어요.

그때 마침, 학년 중간에 방부 드린 스님이 있었는데

“그런 스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장난치지 말고 지호 스님 좀 불러줘요.”

“정말 우리 반에는 지호 스님이라는 스님은 없습니다!”

모두들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새로 온 스님은 제 법명조차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윗반스님이나, 아랫반스님들한테까지 '할아버지'로 많이 불렸지요.



◆ 운문사 강원을 졸업하고 나서의 과정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유학도 가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을 가고도 싶었지만 망상을 하지 않고 정진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좀더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 마음자리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마음을 어디서나 챙기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아는 선배

스님이 일본에 유학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가 있어서 일본 불교대학에서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유학하며 〈유식唯識〉을 전공했어요.

그런 후 경주 동국대에 인연이 있어 15년 정도 불교학 및 선학 개론, 역사 심리 등을 강의했어요. 강의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자료를 열심히 찾고 노력한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학을 하면서 은사스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강의를 하면서도 주말이나, 초파일이나, 절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은사스님을 도와야 했어요.

지금은 은사스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해서, 본의 아니게 은사스님 모시고 안흥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운문사 25회 반스님들에게 차기 총동문회 회장으로 추천받아 총동문회 회장을 맡게 되었지요.

◆ 스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외적인 활동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스님 법립에는 충분히 뜻대로 살아 가실 수 있으신데 은사스님 뜻을 수용하여 살기로 결정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내가 맨상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리가 있고, 또 어떤 일이든 내 앞에 놓인 일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자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은사스님께서는 이제껏 복지 활동을 많이 하셨고 대외적이신데, 제가 못 받쳐드려서 오히려 은사스님께서 나하고 사셔서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웃음)

◆ 도심사찰로서 포교에도 힘쓰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포교를 하시는지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 편안함을 주려고 하고, 부처님 가피력과 부처님 말씀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어요.

'제악막작諸惡莫作 모든 악한 일은 짓지 말고, 중선봉행衆善奉行 모든 선한 일은 받들어 행하며, 자정기의自淨其意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 시제불교是諸佛教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과거칠불께서 공통으로 말씀하셨던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를 바탕으로 생활하면 "부처님처럼 사는 주인공" 이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수행은 어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서부터 출가해서 부처님 시은施恩을 많이 받은 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평소 마음속에 항상 새겨두는 계송이 있어요.

阿彌陀佛在何方 아미타불재하방

着得心頭切莫忘 착득심두절막방

念到念窮無念處 염도념궁무념처

六門常放紫金光 육문상방자금광

아미타불(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부처님 명호를 무수히 찾지만,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 간절히 잊지 말고, 생각 생각 다하여서 무념처에 이르면, 항상 육근문에 자색 금빛 대광명이 비추리라. 이처럼 자기 부처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스님께서는 이야기 내내 자신이 특별히 수행
한 것도 없고, 보여줄 게 없다며 겸손해 하셨
지만, 오히려 그런 평범함이 스님을 아름답
게 했다.

선방에 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지
만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안정되고 편안
하고 자유롭듯이 현재 처한 환경에서
스스로 자연스러우셔서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했다. 본인
의 발원대로 스님께서는 여여부동如
如不動하게 자기 자리에서 향기 나
는 수행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런
수치작주隨處作主하시는 모습은 나
의 수행을 돌아보게 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부러지고 이지러진 마른 나무 막대기여서 나무꾼도 돌아보지 않는
최잔고목 摧殘枯木과 같이 되어서야 참으로 공부를 지어갈 수 있다’는 대매법상大梅法常 선사의
계송이 맴돌았다. ☺



마음 거울 명상 체험하기

지운



명상을 함에 있어 비춘이 없고 텅 비어 있기 만한 마음거울[如實空鏡]을 각성시켜 분별없이 비출[無分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출이 나타나야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거나, 그 대상에 집중하여 마음의 고요함인 선정을 얻거나, 대상의 본질을 깨뚫어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바른 지혜를 얻어 평등함에 들어갈 때 지혜와 선정이 원융(定慧雙運)하여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1. 마음의 본래 깨달음은 명상의 수단이자 깨달음의 단계

우선 텅 빈 무분별의 비추는 마음 거울을 드러내려면 비추는 거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그만큼 명상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명상수행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실제 거울을 사용하는 명상을 해 봅니다. 둘째, 이를 실천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을 해봅니다.

1) 무분별 비춤의 마음 거울 드러내기

마음의 청정한 본성은 첫째, 거울같이 비추는 성품이 있습니다. 둘째, 인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의 거울같이 비추는 성품은 「대승기신론」에서 설하는 지혜대광명智慧大光明, 변조偏照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 신경 세포가 망가져서 치매가 와서 부모 형제를 못 알아본다고 해도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의 인식은 「대승기신론」에서 설하는 진실식지眞實識知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이 인식입니다. 말하자면 바르게 알았던 잘못 알았던 안다는 것 자체는 진실합니다.

거울같이 비추는 것은 마음 거울에 갖가지 현상이 비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울에 비치는 갖가지 현상이 가고 옴이 없고 거울을 오염시키지 못하듯 이 마음 거울도 그와 같습니다만 우리는 마음 거울을 늘 쓰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거울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곧 무분별의 거울 명상입니다.

2) 무분별 비춤의 마음 거울은 곧 사마타와 위빠사나입니다.

무분별 비춤의 거울 명상은 마음의 청정한 본성의 텅 비면서 거울같이 비춤과 인식이 그 수단입니다. 즉, 직관과 추론으로 인식하여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써 집중 명상인 사마타와 분석 명상인 위빠사나입니다. 그러므로 청정한 본래 깨어 있는 마음 거울의 본성이 모든 존재의 근원 이면서 진실이지만 동시에 수단이 됩니다.

무분별 비춤의 명상에서는 거울같이 비추는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몸과 한 공간을 이루고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고 우주와 한 공간을 이루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공간은 무분별 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며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알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울같이 비추는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써 거울의 반사로 자기 얼굴 보기와 반복하고 익숙하게 했을 때 거울같이 비추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2. 거울의 반사로 자기 얼굴 보기

거울명상은 '거울의 반사로 자기 얼굴 보기'와 '마음 거울의 반사로 자기 얼굴 보기'가 있습니다. 실제 거울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고 그다음은 실제 마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명상으로 전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앞에 두고 자신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얼굴은 감정과 심리가 표현되는 장소입니다. 얼굴을 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점심때는 거울을 보면서 아침부터

있었던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과 심리를 살펴봅니다. 저녁때는 거울을 보면서 점심부터 있었던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과 심리를 살펴봅니다.

이와 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울의 반사로 자기 얼굴 보기'로 자기 자신을 반조하여 봅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인지하기, 인정하기, 원인 알아차리기, 이치로 환영임을 알아차리기, 감정과 생각 바뀜을 알아차리기입니다.

첫째, '인지하기' - 마음에는 의심, 죄책감, 소망, 욕구, 수치심, 분노, 탐욕, 외로움, 이기심 등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일어납니다. 오늘 거울로 자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인정하기' - 이와 같은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감정이 있거나, 복잡한 생각이 있거나 머리 아프게 하는 생각이 있으면 '○○같은 감정과 생각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원인 알아차리기' - 이와 같이 인정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 아프거나 생각이 복잡하거나 머리가 아플 때는 거울의 자기 모습을 자꾸이 지켜보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프게 하는 원인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넷째, '이치로 환영임을 알아차리기'
- 거울에 반사되어 비치는 나의 얼굴과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 또는 생각과 그 원인이 차례로 거울에 비치는 사물은 진실이 아니라 환영이듯이 나의 얼굴이 환영이고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 또는 생각이 환영이고 그 원인도 실체가 없는 환영임을 사유합니다. 즉, 거울에 비치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없고, 잡을 수 없고, 오염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울 자체가 허공같이 텅 빔을 사유합니다. 거울의 이와 같음을 반사하여 내 마음도 텅 비게 합니다. 텅 빔 마음이 거울 같아서 나타나는 감정과 생각도 환영과 같음을 사유합니다.

만약 앞서와 같이 거울의 반사를 활

용한 명상을 하더라도 마음을 텅 비우기가 어렵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텅 비우기를 쉽게 하기 위해 ①과거의 감정과 생각은 지나가서 없고, 미래의 감정과 생각은 오지 않아 없고, 현재의 감정과 생각도 머물지 않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봅니다. 이렇게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감정과 생각이 환영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감정과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즉, 텅 빔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는 호흡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는 이미지나 허공 등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견문각지見聞覺知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텅 비어지기 시작합니다.¹⁾

③어느 수행자가 '개는 불성佛性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조주 선사는 '없다無'라고 대답한 무자無字를 붙들고 있으면 이 무자는 '개에게 불성이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부정한 것입니다. 있음과 없음을 근거한 온갖 견해를 부정하게 되면 마음이 텅 비어 갑니다. 거울 같고 허공 같은 마음의 청정한 본래 깨달음과 코드가 맞으면서 마음이 텅 비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에는 본래 깨달음인 마음의 본래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감정과 생각 바뀜을 알아차리기' – 이와 같이 거울의 반사를 통해 비치는 나의 모습, 감정, 생각, 원인을 사유하다 보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위의 다섯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은 진정되고 편안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불쑥 올라오면 다시 다섯 과정을 거울의 반사를 통해 명상합니다. 그다음은 실제 거울 없이 마음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봅니다.

3. 마음 거울의 반사로 자기 얼굴 보기²⁾

실제 거울 없이 '마음 거울의 반사로 자기 얼굴 보기'에도 첫째는 '행주좌와에 자기 얼굴을 인식하기'입니다. 자기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 인식은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식은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인식되는 자기 얼굴은 거울에 비치는 영상과 같습니다. 즉, 자기 인식은 마음 거울이며 마음 거울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은 자기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거울의 반사로 자기 얼굴 보기'와 같은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인지하기, 인정하기, 원인 알아차리기,

1) 의지하지 않음은 눈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2) 자기 얼굴을 보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나이가 들면 저녁 무렵에 기운이 떨어짐을 경험한다. 대상을 인식할 때 눈을 통해 에너지가 대상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얼굴을 인식하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피곤함이 줄어든다.

이치로 환영임을 알아차리기, 감정과 생각 바뀜을 알아차리기를 합니다.
둘째는 '상상의 다실로 초대하기'를 합니다.

4. 상상의 다실로 초대하기

상상의 다실은 마음 거울에 비춰진 영상입니다. 상처받은 나와 나를 화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같이 연상의 다실로 초대합니다. 초대된 사람의 얼굴을 살핍니다. 얼굴은 감정과 생각의 표현입니다. 얼굴을 살피는 것으로 상대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차상茶床에 간단하게 차 도구를 갖추고 초대된 나와 나에게 화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에게 차를 권합니다. 같이 차를 마시고는

당신이 나에게 화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축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는 서로 안아 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초대하기는 초대된 사람들이 인식하는 마음 거울에 비치는 것입니다. 비춰진 상처받은 나와 상처 준 상대방을 용서해 주고 화해하여 맷힌 감정과 생각을 풀어버립니다. ④



지운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선사 주지
사단법인 한국 차茶명상협회 이사장
보리마을자비선명상원 선원장

밤나무

각인 / 사교과

초대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은 저 세상으로부터 차조아와쓰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차조아와쓰고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데
기예 무수 탄식이 있을 수 있으랴.

마여



보리수 수목원 가는 길

- 행복한 숨보기 수행

혜주 / 대교과

운문사에서 맞이하는 네 번째 가을…

작년 가을 회주스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랑동산, 밤나무동산 등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염불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해 주신 뒤, 나는 밤나무 동산길을 걸어 보리수 수목원에 자주 간다.

수목원 가는 길에는 내게 도반이 되어 준 나무들이 있다. 500년 된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와, 회화나무, 목련나무, 처진 소나무, 보리수나무, 후박나무, 벚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고욤나무… 나무부처님들을 만나며 숨 한번씩 보고, 극락교를 건너 밤나무 동산에서 밤송이들을 보며 숨 한번 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며 명상을 하곤 했다.

이목소를 바라보고 밤나무 옆에 앉아, 부처님과 이 도량을 지켜 주시는 주지신, 주공신, 주풍신, 주림신 등의 모든 신들과 옥빛의 시냇물, 소나무 밤나무가 주는 고요함과 평온함에 감사하며 들숨 날숨을 바라보았다.

들숨 날숨에 마음챙기는 Anapana sati 선정수행.

이 수행과 인연이 닿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출가 전,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심으로 10년간을 사회운동가로 살았다. 그때는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로 바뀌어 물질이 평등해지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은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선善해져야만 세상이 바뀔 거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다 2007년에 인도에서 열린 ‘세계 사회포럼’에 참가하면서 명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년 뒤, 다시 인도에 가게 되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에 머물면서 티베트스님들을 뵙고 수행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몇몇 명상들을 만나다 마지막으로 만난 ‘아나빠나사띠 선정수행’.

‘붓다선원’에서 은사스님을 뵙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했다.

부처님께서는 쌍웃따 니까야(Samyutta nikaya)에서 아나빠나사띠를 이렇게 극찬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들숨날숨에 마음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 하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즉시 이들을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S.v.321)

행자생활을 하며 '부처님의 생애' 와 '법구경이야기' 를 읽으며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수행에 대해 알아갔고, 은사스님과 형님들의 가르침으로 아나빠나사띠 수행의 이익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참회의 절을 하고 앉고, 오후에는 수행자들의 수행을 돋는 공덕을 열심히 지으면서, 망상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나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평온해지고 고요해졌다. 은사스님의 수행 지도를 받으면서 매일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니,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절을 할 때도 모든 일상에서 숨은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운문사에 입학해서는 각자의 업을 갖고 있는 대중들 속에서 함께 수행하며, 때때로 '아상' 과 '자만' 이 올라와 분별하면서 괴로운 시간도 보냈다. 그때마다 숨으로 돌아오는 습관은 큰 도움을 주었다. 분별심에서 알 아차림하고 숨으로 돌아와 '나란 없는데, 이 몸과 마음은 무상無常한 것인데, 또 나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숙고하며 하심下心 하려고 노력했다.

졸업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 앞에서 세세생생 지은 모든 악

업을 참회懺悔하기 위해 부지런히 절기도 하며, 계율戒律을 잘 지키고, 경經을 수지독송受持讀誦 하려 노력하고 있다. 부처님 정법을 만나기 전 내가 '탐냄 · 성냄 · 어리석음' 의 삼독에서 고통 받은 것처럼, 이런 고통에 있는 많은 이들이 '사마타 위빠사나(Samata Vipassana)' 수행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돋는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으려 한다.

운문사는 지금 주홍빛 꽃을 피운 만리향 나무들의 은은한 향으로 장엄莊嚴되어 있다.

우리 화엄반華嚴班의 배움터 설현당說玄堂 앞에도 두 그루의 만리향나무 부처님들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로 살고 있는지' 바라보고 계신다.

소나무 부처님, 은행나무 부처님, 후박나무 부처님, 목련나무 부처님, 감나무 부처님, 만리향나무 부처님... 운문 도량의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도량을 수백 년간 일궈 주신 모든 선지식들께 깊이 감사하며, 열심히 복을 짓고 수행 정진하겠다고 발원해 본다. ☩

사유의 힘

원경下 / 사집과

고등학생 때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운문사 새벽예불에 참석 한 적이 있다. 이른 새벽녘 하늘, 도시에서 보기 힘든 별들이 참 많아 감탄했던 게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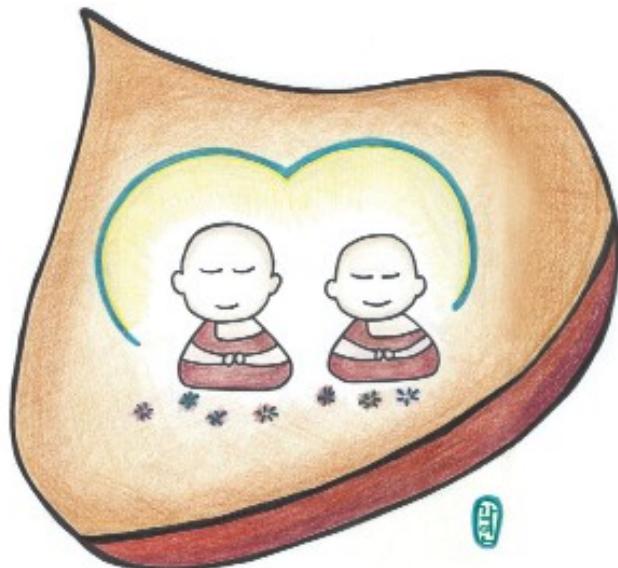
종각 앞 커피자판기에서 율무차 몇 잔으로 가족들과 차가운 몸을 녹이며 까만 구름처럼 보이는 처진 소나무를 지나 대웅보전으로 들어섰다. 법당 안을 가득 채운 백여 명이 넘는 스님들을 보고 나는 우주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이후 처음으로 경이로움을 느꼈다.

어느 한 학인스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나는 스님들을 관찰했다. 스님들이 하고 있는 목도리, 장갑 심지어 기침소리까지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때 주변에 앉아 있던 학인스님들은 나를 이상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날 운문사 대중스님들의 새벽예불 소리가 내 마음 속에 불심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런 감정의 기억이 있는 곳에 이제는 내가 스님의 모습으로 운문사 대중의 일원이 되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운문사에서 생활은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고 많은 사유를 하게 한다. 경상 앞에 앉아 경이나 옛 조사들의 날카로운 일침을 보고 배우는 것도 공부가 분명히 맞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공부는 부처님과 옛 조사들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고 배워야 한다.

불교가 무엇이고 도대체 부처님과 옛 조사스님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진실하게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사실 누가 가르쳐 주고 알려 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경계나 일을 겪음으로써 사유를 하게 되고 사유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 되게 자신의 마음과 계합된 일이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나는 운문사에서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 자신에게 '모든 이를 스승으로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하심하자!' 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과 행동으로는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고 답답했다. 억지로 공경하고 하심하니 오히려 마음에 병통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에 이익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낱 말 못하는 짐승과 미생물에게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나'라는 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좋고/싫음, 옳고/그름이라는 분별심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일체가 하나이고 하나에서 일체 모두가 나왔다는 '불이 不二' 즉,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인 사실을 망각한 채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는 진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로소 나는 또 한 번 반성과 참회를 하게 되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말이나 설명으로 이해시켜 줬다면 이만큼 마음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사유함으로써 마음에 더 와 닿고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사유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운문사에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보면서 정말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고 우리는 둘이 아니다.' 또 한 번의 다짐으로 이 글을 마친다. 모든 이가 부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_0_ ^)

간절함

도솔 / 사미니과

간절懇切.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간절함의 의미는 ‘정성이나 마음 등이 아주 지극하다’이다.

무언가를 염순하고 원願을 세울 때 간절함이 묻어나게 기도하고 정진을 하는가?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기도를 하고 안 되면 그저 누군가를 탓하기 바쁜가?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어떠한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조금만 불안함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절에 찾아가서 무작정 그저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기도했으니 잘 되게 도와 주세요.’라는 식으로 기도를 했다. 모든 것이 기도하는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될 때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문사 입방을 앞두고 은사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곳에 가서는 너무 잘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뭐든 적당하게 해야 한다. 언쟁과 논쟁이 일어나 타인이 너에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한 말에 휩쓸리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좋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은사스님이 해 주신 말씀처럼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방하기 전까지는 매일 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강원생활 4년 동안의 무장무애를 기원하며 매일 천 배씩 절 기도를 했다.

하지만 나의 기도와는 달리 입방하고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약에 의존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에게 걱정을 안겨 주기 시작했고 마음에 여러 생각이 올라왔다. 내가 기도를 간절하지 않은 마음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나의 생각을 내며 건강과 운만을 기대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그럼 간절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어릴 때 기도를 하고 부처님을 찾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니 항상 기도를 할 때는 간절한 것 보다는 무언가 급박하고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간절함이 아닌 그저 그 상황을 잘 넘어가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기도를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참담한 기분과 더불어 나는 업만 쌓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에 '간절하자'라는 생각과 더불어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끝에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언제 어디서든 상황에 상관없이 불보살님의 명호라도 간절히 외워보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짧게나마 이동하는 순간에도 지대방에서 도반스님들과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도 마음속으로 라도 놀지 말고 계속 염하자!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고 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불 올리고 부처님과 조사님들께서 남겨 주신 글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 무탈하게 잘 보내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만 생각하자!

중간 중간 하다가 현실에 빠져 잊어버리고 돌아오기를 여전히 반복 중에 있지만 보왕삼매론實王三昧論에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念身不求無病]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處世不求無難]"라고 말했듯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다보니 처음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치문반의 생활에 적응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나의 기도의 답이 아닐까하는 작은 생각을 해본다. ☺

운문의 가을,

그 소박한 선물

편집부

이 그림 속으로 들어오세요!!



가을 연초록이 아름다운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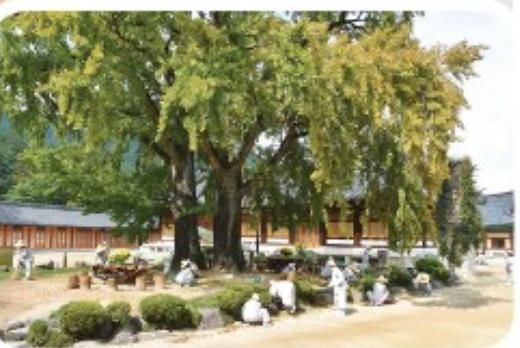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일.
회주스님 음성이
파란하늘 흰 구름 속으로 울려퍼지고 있다

화엄경 수업은 이렇게~



정성스러운 손길
추석 다례 고임새



은행나무 열매들이
선물처럼 땅에 내린 날~



보리수 수목원엔 감나무가 풍년~
회주스님 고맙습니다~



치문반 첫 논강을 축하합니다~

초발심 수행

총지 / 대교과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친견하고 한분 한분께 묻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행을 행합니까?'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한 선재동자는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도에 대한 열망으로 화두를 이어나갑니다.

여기 모인 대중스님들은 매일 어떠한 수행을 하시며 어떠한 보살행을 하고 계십니까?

법화경에 따르면 제불세존은 일대사인연을 위해 이 세상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즉, 범부중생은 이 땅에 온 목적 없이 죽기 두려워 살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큰일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일대사인연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모든 선업을 쌓고 모든 공덕을 수집하라는 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문, 사집, 사교, 그리고 화엄의 중반을 지나오며 다양한 조사어록과 경전들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대승경전 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기초가 탄탄해야 했고, 금구성언을 바른 견해로 섭수하기 위해선 일상생활에서의 저와 경전 속 부처님 말씀 간의 괴리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성정각을 보살 만행의 꽃으로 장엄한 경을 득송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너와 나를 가르고 있는 이중마음을 보며 모순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초발심 자경문을 다시 꺼냈고, 그간 운문사 대중 속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원력이 없이 보낸 나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국사의 계초심학인문은 특히나 초심자들의 내공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아주 명료하고 직선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중 몇 구절을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나쁜 벗을 멀리하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 무릇 초심자는 계율을 지키지 않고 욕망을 가까이하는 나쁜 벗을 멀리하고 계행이 청정하고 지혜가 명철한 이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면, 그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과 행이 아니라면 단호히 무소의 뿐처럼 좋은 벗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둘째, 다투는 이가 있으면 양쪽을 화합하게 하여 오직 자비심으로 서로를 대하게 할지
언정 나쁜 말로 서로를 상하게 해선 안 된다. 만약 도반을 속이거나 업신여겨서 시비를 가린
다면 그와 같은 출가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아무리 '성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가한 수
행자라도 일상생활을 함께하다보면 종종 중생심이 부딪쳐 순간에 윤회의 굴레로 출입하기
를 반복합니다. 옆 도반과 시시비비를 가지고 있는 자기자신을 발견하면 정법과는 반대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셋째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 알려 줍니다.

세수할 때 큰 소리로 하지 말며, 말할 때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 안 된다. 중요한 일이 아
니면 산문 밖을 나가선 안 되며, 아픈 이가 있다면 자비심으로 돌보아 주고

넷째, 마련된 생활도구를 쓰되 검약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공양시 맛있고 맛
없는 음식을 가려 좋고 싫다는 마음을 내면 안 된다. 이 공양이 도업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아
야 한다. 자본주의와 서양 신식 문물에 길들여진 삶을 살다가 출가한 우리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연습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출가자의 삶은 좋은 것을 택하는 삶
이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중도를 연습하는 삶입
니다. 오늘도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탐낸 제 안의 삼독심을 깊이 참회합니다. 부처님
께서 율을 만드실 때는 수범수제隨犯隨制라 하여, 먼저 어떠한 잘못이 발생하면 곧 따라, 그
것을 바로잡는 계율을 세우셨는데, 이러한 대목들 역시 옛부터 있어 왔던 폐단에 상응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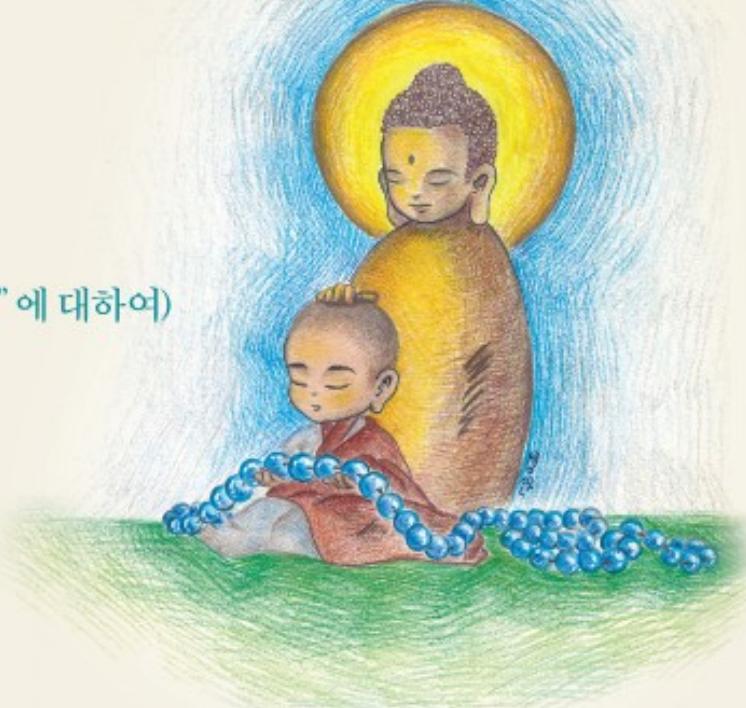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해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그론 줄 알면 바르게 고치며 참회
하여, 힘써 연마하면 수행의 문이 청정해질 것이다. 비록 방금 전까지 탐심으로 무엇을 취했
더라도 뉘우치고 다시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한 발 나아가는 바른 수행의 자세가 아닐까 생
각합니다. 고정된 내가 있지 않고 늘 새로운 나입니다. 대중생활하는 예절, 공양하는 예절,
예불하는 예절, 공부하는 자세 등 화엄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윤의
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불법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불법은 정법이 아니요, 생
활 속에서 신정행身淨行, 구정행口淨行, 심정행心淨行, 자비행慈悲行을 실천한다면 그 자체
가 수행이요, 기도입니다.

'시간 시간이 흘러 밤낮이 지나가고, 하루하루 흘러 그달그달 그믐이 빨리도 지나간다.
한 달 한 달 바뀌어서 문득 다음 해가 이르고, 한 해 한 해 지나가 문득 죽음의 문에 이른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대중스님들 모두 원력을 세워 각자 수행의 길 무탈하게
걸어가시길 발원합니다.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낸 선재동자가 대승의 마음으로 하심하며 매
번 새롭게 발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수행임을
잊지 않고 매일 새롭게 자기 자신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



고마운 선물 (부제 : “잘못했습니다.”에 대하여)

수정 / 사교과



별씨 사교 여름에 접어들었다. 치열하고도 매서웠던 폭풍의 2년하고도 반이 지나갔다. 깎이고 다듬어지는 시간 동안 밖으로 향해 있던 몸과 마음이 점차 안으로 향해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반조하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듯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 안의 수많은 어둡고 잘못된 인식을 분명히 보고, 빛을 향해 밝음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듯하다. 그 여정에 있어 운문사 대중 생활에 꼭 필요한 참 고마운 선지식과도 같은 말, “잘못했습니다.”에 관한 짧은 사유를 풀어보고자 한다.

운문사 대중 생활 속에서는 무언가 성급한 마음으로 절차를 밟지 않고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나의 행위가 불순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잘못 인식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아 마음이 긴장 속에서 조금해지고 성급하여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그것이 어떤 임계점을 넘게 되면 경책을 피해갈 수 없게 되는데 소임자로서 책임을 맡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참회를 해야 한다. 무언가 염라대왕 같은 큰 존재에게 사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 순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느낌이 번뇌, 망상으로 올라오는 데 그럴 때는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신 은사스님께서는 업이 한 번에 녹겠느냐고 하시며 "잘못했습니다."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다.

사집반 여름방학, 큰부전 소임을 맡고 있을 때 나는 맡은 책임에 대한 중압감이 한계에 부딪쳐 더 이상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만큼 힘이 들었다.

다른 스님이 잘못을 했어도 소임자로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경책을 하려는 사람이 갖고 있는 대중 생활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 의도가 내가 한 행동의 의도와 어긋나 있는 상황일 때,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비추어지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었다. 그래서 한 철 동안 몸은 긴장이 되어 있었고 어깨는 처지고 머리가 상기가 되어 늘 찌릿찌릿했다.

결국은 화의 에너지를 받아내고 녹여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때 올라오는 여러 가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덮어둔 내면의 불선심소不善心所의 어두운 단상을 거듭 마주해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의 굴레에 빠져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온갖 번뇌, 망상을 일으켜 고통스러워했다. 그렇게 공허해진 마음은 위축된 하심으로 연결되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심이 아니었다.

경책을 잘못된 견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상대를 탓하는 마음을 내게 될 때, 위대한 내면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온갖 합리화로 무장된 자기방어 때문에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자세를 갖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발로참회는 바로 이런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 보고, 마음을 재빨리 돌릴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나의 허물을 대중 앞에 드러낸다는 것이 그 순간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큰 용기를 필요로 할 때도 있었지만 악한 마음을 멈추고 선한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좀더 대중 속에 소속하게 하고 대중의 규칙을 따르고 수순할 수 있게

하였다. 혼자만의 생각의 고름 덩어리가 터지면서 마음을 더욱 크게 키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사교에 올라와서부터는 기도하는 습관이 절로 생겨 큰 업장이 올라와 머리가 상기될 때, 생각을 밖으로 투사하는 대신 내면으로 가져와 감내하려는 쪽으로 온 힘을 쏟고 있다.

『금강경』의 「능정업장분」에서

“또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므로 오히려 남에게 업신 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인해 마땅히 악한 세상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곧 전세의 죄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아득다라삼막삼보리(최고의 지혜와 깨달음)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구절의 원리를 실로 체감하고 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대중 속에 살면서 엄이 깨이는 원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곳의 발로 참회 제도는 결국에는 업장을 다스려 주는 고마운 선물인 것이다. 그것을 여러 번 겪음으로 해서 마음이 거듭거듭 비워지고 아상이 비워져 가는 것 같다.

올라온 마음을 그대로 보고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외부로 향하던 마음이 비워지고 그럴수록 책임감은 더 커지게 되면서 소임 중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마음 쓰는 법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닌 타인을 위한 행으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는 경책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최대한 경책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얼음을 걷듯이 조금은 긴장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본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지난날의 온갖 욕망과, 성냄,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의 마음으로 행했던 수많은 잘못을 들여다본다. 나 또한 하반스님을 크게 경책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졌지만, 생각해보니 오히려 자격지심에 가까운 일종의 자기 방어기제였다는 것이 자각되어진다.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었는지, 내가 받은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아랫사람에게 넘겨 주려는 불선한 마음은 아니었는지, 그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상대

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나의 어리석은 견해로부터 행해졌다는 것을 알고 나니 부끄러워진다.

결국 내가 마음을 잘못 일으켜 내가 쓴 화살이 나에게 되돌아온 것이었구나. 또 분별하고 있었구나. 좋고 싫음에 울고 웃고 감정놀이만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알아차림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오늘도 나는 성숙한 마음 씀을 향해 부단히 나아가고 있다.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이다."

달라이라마께서 하신 말씀이다. 경책을 받게 될 때 혹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다.

한 철, 한 철을 거듭날수록 두꺼운 업장이 양파껍질이 벗겨지듯이 조금씩 벗겨지는 듯하다. 칙칙하고 어둑어둑했던 치문을 지나 사교에 오기까지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준 운문사 도량에서의 삶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하루하루 깨어난 마음자리에서 응어리진 마음의 뿌리가 모두 치유될 때까지 남은 강원 생활을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딛고, 거듭거듭 참회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향하고 싶다.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고운 말로 누구에게나 희망과 용기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분별없이 친절한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_0_.



추석 날, 저희 치문반은 학소대에 다녀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몇 명의 도반들이 함께 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지만 알지 못하는 곳 어딘가를 향해 길을 떠난다는 설렘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며 산행 갈 생각에 모두들 기분이 들떴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산행을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을 기다린 저희 마음엔 산행 이외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원 뜰 앞에 있는 파란 도토리 통 중에서 유독 낮은 높이를 보이는 치문반의 도토리 통을 채워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추석산행 도토리 이야기

경운 / 사미나과

틈틈이 이목소 물속에서 건져 올리기도 하고, 바위틈에 떨어진 것을 주워 넣어도 좀처럼 양이 늘지 않는 가난한 치문반의 도토리 통…….

‘흠--- 추석 산행을 기대해 봐야지. 그날 열심히 하면 좀 채워지지 않을까?’ 누구 눈에 띌까 몰래 몰래 열어보며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만들어진 일명 도토리 원정대.
급한 마음에 주먹밥 도시락 챙기는 것도 깜빡하고 도토리 담을 검은 비닐봉지랑 오이와 굴만 달랑 넣어서 길을 나섰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몇몇은 눈을 반짝이며 숲길 돌틈 사이에 떨어진 도토리를 수확하기 시작했고 산행에 뒤치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자 한 도반스님은 “스님~!! 겨울철 동물들 식량 가져 가면 안 돼요~” 하며 말렸습니다.

저는 “이 넓은 운문산에 도토리가 이리 많고 오가는 사람은 없는데 도토리가 남아서 넘칠걸요?”하면서 부지런히 주웠지만 산행 내내 도토리 봉지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들려 주세요.”



그것은 강력한 경고의 싸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해 도토리 원정대는 초라한 수확량을 끝으로 활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쉬면서 간식은 이미 다 먹어버렸고 도토리 수확도 그만 접었는데 비는 계속 오고 앞으로 학소대 까지는 1.7km가 남았고, 눈앞에는 가파른 돌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르막 돌길을 걷고 바윗돌 징검다리 개울을 건너 다보니 발목은 이리저리 휘둘려 아프고, 종아리는 제법 딴딴해지고 지팡이가 간절해졌습니다. 걸방에 집어 넣은 그 소중했던 도토리 봉지도 무겁고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학소대에 도착하니 산 오를 때의 어려움과 도토리에 대한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비 내리는 폭포의 비경과 시원한 물방울에 감탄하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스님께서는 치문반 가을 겨울철 더 단단하고 썩썩하게 잘 지내라며 격려해 주셨고 무사히 잘 하산하자 하시며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도반들은 새로운 계절에 다시 만날 학소대를 기대하며

“계곡에라도 매주 오면 좋겠다.” “가을 단풍과 겨울 눈 쌓인 풍경도 보고 싶다.”

“사집반 되면 여름 방학 때 여기 와서 튜브 타고 놀고 싶다.” 등등 많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도토리 대회는 사교반 스님들이 1등을 했습니다. 반전은 어른스님들께서 치문반에게 나눠 주신 노고어린 도토리 덕분에 치문반이 2등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이 영광을 도와 주신 어른스님들께 돌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 우승을 다시 기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의 길로…

보선 / 사집과

길을 나섰다.

명예와 부를 쫓아 목표 지향적이었던 10여 년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헛헛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찾아 나서야만 했다. 간절한 마음은 모든 것이 낯선 지구 반대편으로 배낭 하나 달랑 챙겨 무모한 도전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남미대륙 끝에서 끝까지 대략 5천 킬로를 두 달간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드넓은 광야 한복판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기도 했고 텐트 하나에 의지해서 어디서든 잠을 자기도 했고 칠후같이 어두운 고속도로 위에서 달빛 하나에 의지해 걷고 또 걷고 며칠을 굶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두려움도 불편할 것도 힘들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저 경이로운 대자연 앞에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하루하루가 1년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불안해져만 갔다.

이렇게 여행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텐데…… 돌아가면 뭘 하고 살아야 하나? 가족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채워진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가 되고 말았고 그 근원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다시 돌아왔다.

여행할 때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의 힘듦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밑거름이라 믿었다. 하지만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동료들과 매순간 비교되는 현실에 좌절했고, 보이지 않는 결과에 밀려오는 초조함은 사회적 박탈감으로 변했다. 불행은 나날이 더해져만 갔다. 결국은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현실 탓만 하면서 그렇게 헛헛한 삶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되돌아왔다. 나는 소위 'N포세대'에 합류한 것이다.

'N포세대'는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요즘 20대-30대 한국 청년 10명 중 8명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하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은 더 짜증해졌고, 꿈도 희망도 없는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시대적,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 사회적 제도나 경제, 문화,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하지만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포기해야 하는가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사회를 바꿔도 개개인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끝없는 갈등과 대립, 불편, 부족, 불안, 공포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느끼기 때문이다.

天衾地席山爲枕
日燭雲屏海作檻
大醉居然仍起舞
却嫌長袖掛巔峯



하늘은 이불, 대지는 자리, 태산을 베개 삼고
저 달은 촛불, 구름은 병풍, 바다는 큰 슬잔 삼네
크게 취하여 자리 털고 일어나 춤 추다가
행여나 장삼자락 곤륜산에 걸릴래라

- 진극대사 -

이렇게 우리는 헛된 욕망에 이끌려 인생을 낭비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만족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포기한 것 이 아니라 단지 불만족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N포세대를 N불만족의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항상 무엇을 하든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그 자리가 참된 자리임을 알아 자족할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의 실천이 절실한 세대인 것이다.

외부환경만 탓하며 절망하고 후회하고 분노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수준과 현실을 직시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래서' 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내면의 수행이 필요하다 생각해본다.

다시 길을 나섰다…

이불이 없으면 하늘을 이불삼고 베개가 없으면 태산을 베어도 만족하는 삶을 찾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섰다.

무모한 도전이 아닌 확고한 믿음으로 또 한 번 첫발을 내딛었다. 어리석음으로서 비롯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법을 이어온 거룩한 승보에 귀의하여 정도正道의 길을 걷는 중이다. 명예와 부를 쫓던 삶도 남과 비교하며 나를 내세우던 자존심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중이다. 이 길은 비포장도로길이라 피해갈 돌도 많고 둘러가야 할 길도 있고 발도 아파 천천히 신중하게 가야 할 혐난한 여정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걷고 또 걷고 있다. 만족의 길로 가는 여정이 그리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새 절망에는 만족의 열매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소욕지족少欲知足, 적은 것으로써 넉넉할 줄 알아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겨보면서 찰나찰나에 충실하며 부처님 정법을 따르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를 발원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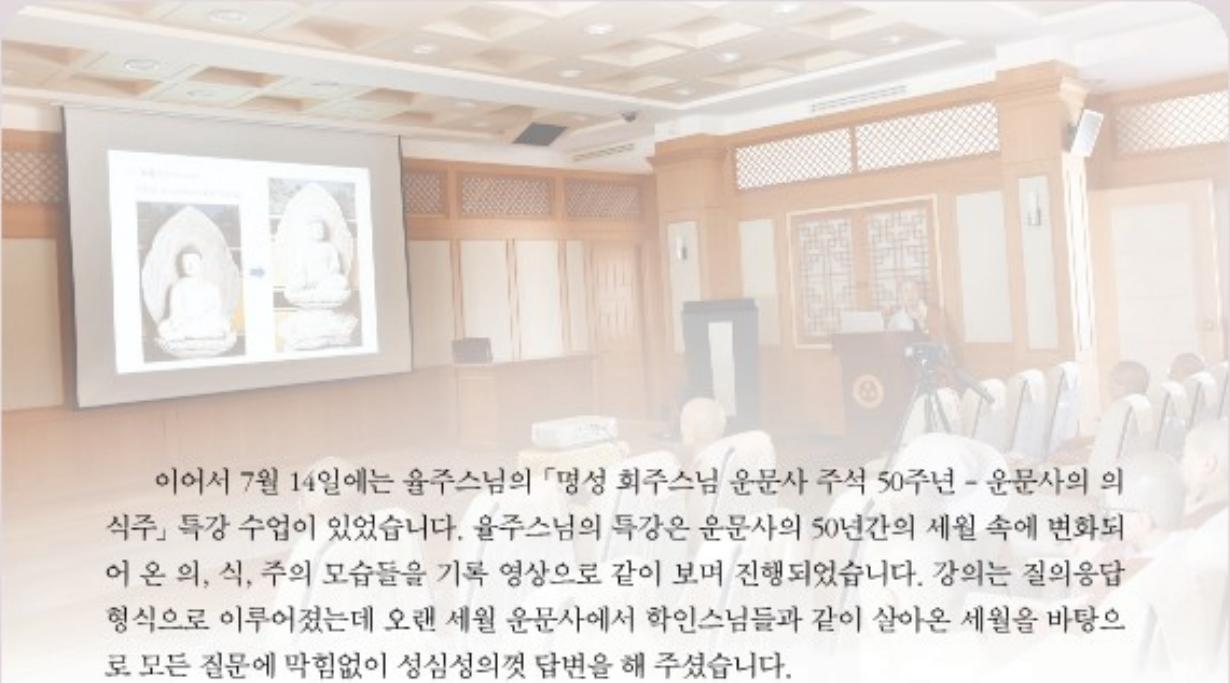
운문사 어른스님들의 특강을 들으며

교화부

운문사에서는 연례적으로 학인스님들을 위한 다양한 특강 수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이러한 특강 수업들이 중단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학인스님들은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자자 시간에 특강 수업이 가능하지 않으면 운문사 내 회주스님 이하 어른스님들의 이야기로 특강을 듣고 싶다는 안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6월 26일 회주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시작으로 교수스님 특강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특강은 비대면 영상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바로 앞에 나와 해 주시는 것처럼 친근하고 생생했습니다. 회주스님께서는 자신의 경험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 발심수행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대중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초발심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7월 14일에는 율주스님의 「명성 회주스님 운문사 주석 50주년 - 운문사의 의식주」 특강 수업이 있었습니다. 윤주스님의 특강은 운문사의 50년간의 세월 속에 변화되어 온 의, 식, 주의 모습들을 기록 영상으로 같이 보며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랜 세월 운문사에서 학인스님들과 같이 살아온 세월을 바탕으로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10월 4일에는 학장스님의 「운문사 성보 문화재의 현황과 내용」 특강 수업이 있었습니다. 특강은 성보 문화재의 의미와 현재 운문사에 있는 성보 문화재를 소개하고, 현재 유실된 사찰 문화재 현황과 환수 과정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학장스님은 유실된 사찰 문화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인스님들을 독려했습니다.

세 번에 걸친 회주스님과 윤주스님 그리고 학장스님의 특강 수업은 현재 우리 학인스님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특강이 없던 일상생활에서 세 분의 강의를 통해 알차고 보람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 어른스님들의 시원하고 명쾌한 명강의을 들으며 마음의 무더움에 시원한 소낙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주제로 우리 학인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해 주신 어른스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운문사에 계시는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학감스님 및 다른 어른스님들께서도 특강을 준비해 주고 계신데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특강을 해 주실지 몹시 기다려 집니다.

회주스님과 윤주스님 그리고 학장스님의 강의를 못들어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운문사 유튜브 채널인 '운문사 TV'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

「주역周易」을 읽고

동호 / 윤문한문불전승가대학원

읽어보지 않았어도 ‘주역周易’이라는 책 제목은 들어봤을 듯합니다. 주역은 중국 주나라의 점치는 책에서 출발해서 유가에서는 오경의 유품으로, 도가에서는 노자, 장자와 함께 세 가지 현묘한 것(三玄)의 유품으로 칭송되며 동양학의 뿌리가 되는 책입니다. 어렵게도 이 책을 요즘에야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글을 청탁받고 처음 떠오른 책이 주역이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고, 왜 공자가 만년

에 주역을 좋아하여 죽간의 가죽끈이 세 번 끊어지도록 읽었는지, 왜 주역을 공부하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지¹⁾ 구구절절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역에 관한 책은 너무나 많아서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역을 전공한 영남대 철학과 정병석 교수님의 담백한 주역을 추천해 봅니다.

주역의 시초는 점치는 책입니다.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 카드놀이를 생각해볼까요? 모두 64개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카드는 ☰, ☷ 등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땅(☷), 불(☲), 물(☵), 산(☶), 번개(☳), 바람(☴), 늪(☱)의 8가지가 2개씩 결합한 형태입니다. 우선 점을 칠 내용을 생각해보고, 제가 뽑은 카드는 ䷀입니다. 카드가 어려우면 동전의 앞면을 양(+), 뒷면을 음(-)으로 하여 여섯 번 던져서 모양을 구성해봅니다.

이 모양을 패卦라고 하는데 주역에서 해당하는 패의 해설(卦辭)을 찾아보면 ‘막힘이나 장애가 없는 편안함에 있다.’는 태패泰卦를 만나게 됩니다. 상징은 해석을 만나, 우주, 세계, 정치 등에 대한 견해와 결합하게 됩니다. 점치는 책은 해석을 통해 철학서로 변모합니다. 주나라 때의 주역은 이미 당시의 고대 사유를 집대성했고 이후 그 폭을 확장하며 2000여 년 동안 중국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사유와 생활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주역이 처음 나타나서 삼국시대의 왕필王弼에 이르러 현재의 통행본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더해졌습니다. 해설서 또한 철학적

1)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 「논어」 술이述而편

해석을 중시하는 의리역義理易, 기호학적 해석을 중시하는 상수역象數易, 불교적 해석 등 다양한 해설이 존재합니다. 이 중 의리역은 성리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거쳐 우리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주역의 사유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다시 태래로 돌아갑니다. 괘의 모양을 보면 ‘하늘(☰) 위에 땅(☷)’이 있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야 정상인데 왜 반대로 된 모양으로 편안하다고 말할까요? 이것이 주역의 세계관입니다. 주역은 움직이는 상태 즉 동적인 입장에서 하늘의 양기가 위로 올라가고 땅의 음기가 내려와서 소통하는 것을 최적의 상태로, 하늘과 땅이 고정된 것을 막힌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온다(物極必反).” “사람은 이와 같은 도리를 본받아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自強不息).” 생생 변화하는 천지의 도리와 흐름을 보아 때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주역의 세계는 제행무상의 이치와 또한 통합니다.

괘가 가진 6개의 음과 양은 개별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효사爻辭라고 합니다. 건괘 ䷓는 하늘을 상징하며, 효사는 용을 상징합니다. 처음의 용은 잠룡潛龍입니다. 하늘에 오르기 전 아직 물속에 잠겨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용勿用 즉 아직 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룡見龍입니다. 땅에 나타나기는 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거쳐 자시自試 즉 시행착오를 거쳐 야 다섯 번째의 비룡飛龍으로 중정의 자리에 올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항룡亢龍 즉 너무 높이 올라가버린 용입니다. 양적으로 발전하여 질적인 변화의 순간에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재앙이 뒤따르며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치문, 사집, 사교, 화엄을 거치는 우리들의 모습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도 견주어 보면 주역은 자신의 상황을 반추해보게 하는 조언자가 됩니다. 64괘가 있고 모두 6개의 효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384가지의 상황에서 옛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읊미해볼 수 있습니다.

주역의 길흉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에 따라 길흉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린奚하면 길한 데서 흉한 데로 가고, 회悔하면 흉한 데서 길한 데로 갑니다. 린奚은 입口으로만 무늬文를 놓는 것으로 행함에 아낌이 있어 허물고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니 흉하게 됩니다. 회悔는 마음(↑)으로 매번每 뉘우치는 것으로 마음속에 깨침이 있는 것이니 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우한의식을 도덕적 실천과 연결시켰던 주역의 맥락을 알게 되면 주역의 매력은 점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자는 주역을 잘 아는 자는 점을 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리, 철리哲理를 깨치는 것입니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서 오히려 꽂화웠던 것은 이러한 사유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삼장원의 서고에는 주역과 논어, 맹자 등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학인스님들이 불자들은 물론 일반 지성인들까지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불학佛學뿐만 아니라 철학, 외국어, 서예 등의 외전의 교육도 중시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해 수업기회를 주시는 회주스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외전수업은 중단되었지만, 다시금 배움의 기회를 기대해 봅니다. ☺

하얀 거짓말에 대한 일고

하얀 거짓말을 다른 말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한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혹은 덜 거리낄 수 있는 종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난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얀 거짓말로 수월하게 넘기는 것 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라훌라 교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농담으로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라고 공부 지으라고 당부하신다. 금이 간 그릇엔 물이 고일 수 없다. 물이 고일 수 없으면 지혜의 달도 뜰 수가 없다. 수행자라면 철두철미하게 정직해져야 하는 이유이다.

영어로 라이lie는 거짓말을 뜻한다. 여기에 하얀색을 뜻하는 화이트white를 붙이면 화이트 라이 white lie, 즉 하얀 거짓말이 된다. 전통적으로 하얀색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수한 상태를 내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거짓말이라는 단어와 결합이 되면 거짓말에 내포된 부정성이 순화되고 거짓말이라는 행위에 대한 일정정도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다른 말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한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혹은 덜 거리낄 수 있는 종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단순한 거짓말과 달리 해도 괜찮다는 일종의 암묵적 허용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방편이라는 명목아래 공공연히 사용되는데, 주로 상하 위계질서,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구분되는 구조에서는 특히 흔하다. 하지만 정말 상황 따라 해도 괜찮은 일종의 면죄부가 부여된 거짓말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걸까?

불교에서는 이런 종류의 거짓말에 대해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보통 거짓말은 망어妄語로 표현되는데 출가자들에게 적용되는 율의 측면에서는 대망어大妄語와 소망어小妄語로 구분되는 정도이다. 대망어는 범한 즉시 승단에서 추방되고 재출가도 불가능한 극중죄로 '인간을 뛰어넘는 상태[上人法]를 성취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이고, 소망어는 대망어를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의도적인 거짓말을 말하는데 하얀 거짓말도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적인 동기를 지닌 말이므로 굳이 분류를 한다면 소망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얀 거짓말도 범하면 참회를 해야 하는 불선업인 것이다.

유식에서는 부覆심소(숨기는 것)와 광詰심소(속이거나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를 번뇌심소로 분

류하고 있는데 하얀 거짓말도 사실을 숨기고 속이거나 거짓말로 둘러대는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번뇌심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번뇌를 일으켜 업을 짓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얀 거짓말이 면죄부를 부여받은 행위처럼 인식되는 것은 하얀 거짓말이 전제하는 '선의'라는 조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의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이 문제이다. 보통 하얀 거짓말은 남에게 해가되지 않으려는 선한 의도를 전제로 하지만 결과까지 고려해 그 위해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추론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진정한 선의가 무엇인가는 논란이 되기 쉽고 자기 기만적 처세술이나 임시방편으로 남용되기도 쉽다.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 거짓말과 기제가 동일하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자꾸 하다보면 진짜 거짓말도 참말처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부끄러움이나 공포감에 반응하는 편도체 신호가 약해진다고 한다. 거짓말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얀 거짓말로 수월하게 넘기는 것 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물론 이런 방법은 보통 자기희생과 수고가 들기 마련이고 그런 지난한 과정을 감내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이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하얀 거짓말이 불선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행이 아닌 만큼 어렵더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홀라 교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라홀라에게 '농담으로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라고 공부 지으라고 당부하신다. 금이 간 그릇엔 물이 고일 수 없다. 물이 고일 수 없으면 지혜의 달도 뜰 수가 없다. 수행자라면 철두철미하게 정직해져야 하는 이유이다. 가끔이라도 한두 번씩 하얀 거짓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정도의 거짓말쯤이야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이들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보길 바란다. ☩

운문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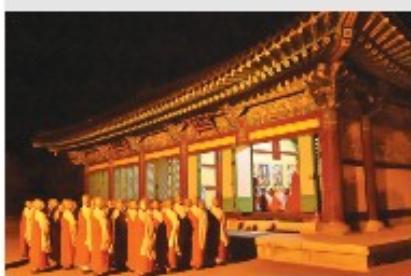
▲ 오벽전 박일기도 임재



▲ 법공양



▲ 학장스님 특강



▲ 구중일 다례재



▲ 문수선원정진

- 9월 9일 가을철 개학공사 및 죽비전달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2일 제43회 오백나한 100일기도 입재가 오백전에서 있었습니다. 입재기도 후 회주스님께서 「참마음 공부」를 펴낸 운문사 신도회 부회장 황성구(화현) 거사님에게 문서포교를 통하여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것에 대해 공로패를 전달하였습니다.
- 9월 21일 추석날, 새벽예불 후 비로전에서 추석 다례를 모셨습니다. 각 반별로 추석 산행을 하였습니다.
- 9월 24일 가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추석산행에 대한 감회와 분리수거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반별 도토리줍기 대회' 상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10월 1일 중앙승가대학에서 열린 2급 승가고시에 운산 주지스님이 고시위원으로 다녀왔습니다.
- 10월 2일 법공양이 있었습니다.
- 10월 4일 교수스님 특강 세 번째로 진광 학장스님의 「운문사 성보 문화재」에 관한 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7일 차례법문이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법사스님 : 화엄반 선일, 총지 스님, 사교반 무공 스님, 사집반 서묵 스님, 치문반 우현 스님)
- 10월 13일 치문반 첫 논강이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4일 조사전에서 구중일 다례재가 있었습니다.
- 10월 22일 화엄반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도 졸업성지순례가 어렵게 되어 ~28일 그 기간에 운문사 문수선원에서 정진을 하였습니다. 회주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일미 감원스님, 그리고 이 기간에 소임을 살아준 선방스님들의 도움으로 7일간의 정진을 원만히 향하였습니다.
- 11월 5일 가을철 포살이 은광 스님을 단주로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6일 ~7일 전 대중스님들이 함께 겨울철 김장을 하였습니다.
- 11월 18일 가을철 종강과 마지막 자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신 분

- 안흥사 지호스님 • 영덕스님 • 김근아 • 김인태 • 송재강
- 이유진 • 이종군 • 이정숙 • 장익수 • 정해옥
- 조서영 • 조창래 • 하옥희 • 한기듬 • 황병석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령」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운문사 오백전 벽화

기우騎牛

騎牛迤麗欲還家
羌笛聲聲送晚霞
강적성송만하

소를 타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려니
피리소리에 저녁노을 흘어지네

- 각암 선사 십우도 中 기우騎牛 -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두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22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자 격 2022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편입가능)

모 집 인 원 사미니과 ○○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상·만의 착용) 2매(3×4)

모 집 기 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전 형 방 법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체)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율주 일진·학장 진광·주지 운산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모 집 대 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2년도 봄 구족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 집 인 원 ○○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율원·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증명사진 2매(3×4)

모 집 기 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전 형 방 법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체)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보현율원 윤주 일진·주지 운산

운문사승가대학·대학원 공통 특전사항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 특전 사항

- 일본 하나조노 대학·대학원
-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 태국 국립 마하柩라룽꼰대학

연수교육사항

-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

재학 중 입학금면제·병원비지원·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졸업여행비지원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57호·2021년 11월 16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편집장·법등·편집위원·도현·진하下·혜건·사진·편집부·표지사진·법등(기술이 보내는 선물)·삽화·은광·선오·
성안·각연·선혜·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